

순창 쉼랜드서 삶의 활력 되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웰-에이징 in 순창’ 연수 성료

순창군 쉼랜드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웰-에이징(Well-Aging) in 순창’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회차당 40명씩 총 2회에 걸쳐 열린 이번 연수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와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방학을 맞아 업무에 지친 학교 영양사 및 조리사들에게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쉼랜드의 청정한 자연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쉼랜드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쉼랜드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힐링 아로마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연일밥과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건강식을 즐기며 순창의 건



순창군 쉼랜드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웰-에이징(Well-Aging) in 순창’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강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판매소 산책을 통해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윌에테라피 체험’과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웃음치유 레크리에이션’,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근육·관절 물파스 만들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연수는 치유와 휴식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순창군의 교류인

구 확대와 생활인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연수가 참가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쉼랜드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국 공공기관과 단체가 찾는 대한민국 대표 치유·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탁구 꿈나무 전지훈련 유치

탁구 미래국가대표 꿈나무선수 하계 합숙훈련 진행

남원시 체육회(회장 류홍성)는 2026년 전지훈련 유치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8월 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2026 탁구 미래국가대표 꿈나무선수 하계 합숙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탁구 꿈나무 선

수와 지도자 50여 명이 남원을 찾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선수단은 훈련 기간 동안 기초체력 강화와 전문기술 훈련을 비롯해 정형별 취약점 보완, 실전 경기 중심의 전술훈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들이 2주간 남원에 머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단위 우수선수 합숙훈련 유치를 통해 남원시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폭염 속 취약계층 안전 지킨다

임실군, 독거노인·독거가구 등 고독사 예방 밀착 행정 추진

임실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독사 방한지원사업’ 대상자 85가구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전격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긴급 대응 조치로 군은 읍·면 맞춤형복지팀 공무원과 지역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점검반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밀착형 점검 및 폭염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긴급복지 지원 및 공공·민간 돌봄서비스를 즉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돌봄을 한층 넓혀 나간다.

8월 중순부터는 방한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가구에서 20가구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유기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독수 임실군수는 “여름철 폭염은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영양 지원을 위한 방한 전달과 세심한 안부 확인을 병행해 단 한 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확대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2026년 8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 14일 이후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부터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21)에 문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다슬기 채취 안전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남철희)는 여름철 하천·계곡을 중심으로 다슬기·민물고기 채취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다슬기 채취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위험지역(요천수 일원)을 대상으로 순찰과 인명구조기구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집중 발생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지역 주민(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59%)의 비중이 25% 더 높게 나타나 낯선 하천에서의 단독 채취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소방서는 △2명 이상 동반 활동 △낯선 곳·야간 채취 금지 △구명조끼·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채취망에 부력제(고무공·스티로폼) 부착 △음주 후 입수 금지 △중증호우 후 유속·수심 변화 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튜브·긴 막대 등 부력 장비를 활용한 구조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A형간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임실군은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A형간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형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다. 약 15~50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갑작스런 소변과 황달이 동반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호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내부까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물론 반드시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